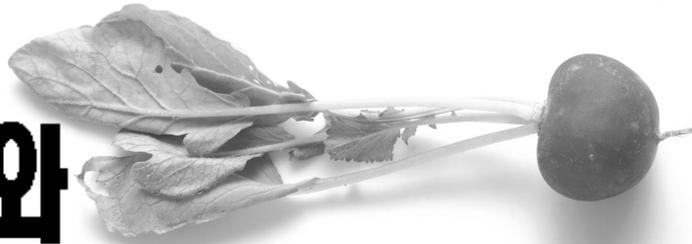


포식의 시대와 외로운 작물보호제 산업



‘친환경 환상·편견·오해·선입견·왜곡정보’ 만연, 홍보 어려워
‘과학·필수농자재 힘’ 이 지속가능케 해, 막연한 불안 조성 말아야

사람이든 사물이든 평생 불리어질 이름(名)의 중요성은 고금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사람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일생의 명예와 풍요를 담보하기 위한 작명(作名)을 위해서는 거금과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시대의 조류에도 많이 민감하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인지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농과대학과 학과이름이 대부분 바뀌었다. 언뜻 이름만으론 무슨 대학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도 개명을 위한 온갖 묘수 짜기에 골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학 및 학과명에 농(農)자가 있거나 과거 농업관련 이미지가 있으면 도통 학생 모으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 그래서 폐과(廢科)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의 발로라면 ‘생존 전략’ 일 수 있으니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꼭 농업 경시 때문이 아니라 하더



박 학 순
한국작물보호협회 홍보차장

라도 웬지 개운치가 않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이야 풍전등화의 딱한 처지가 된 우리 농업이지만, 예로부터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코자 한 표현은 적지 않다. 농자천하지대본, 생명산업, 기초산업, 미래산업 등 등...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제 그

러했다. 그러나 농업경시 풍조는 너무 쉽고 빨리 온 듯 하다. 농업의 가치가 계량하기 어려울 만큼 무한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가치는 우리 국민들 인식 속에서 굳게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 값싼 외국농산물을 접하기가 어렵지 않은데다 포식의 시대에 농업은 단순히 먹을 거리만 생산한다고 믿는 고정관념이 비교역적 기능 등 수많은 장점을 지닌 농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농업을 단순히 식량문제에만 국한한다 하더라도 그 중요성을 간과할 만큼 결코 가

별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농업은 현재 내수와 외환이 겹쳐 쉽게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매우 절박하고 중요한 실정에 이르러 있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지만, 분명 농업은 인류가 존속하는 한 시련은 있을지라도 결코 멸하지 않는 산업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려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으면서 우리 농업은 잠시나마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는 촉망받는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떠한가. GATT, UR, WTO, DDA, FTA 등을 거치는 동안 굳게 걸린 빗장은 하나 둘 맥없이 무너졌고 지금도 우리농업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친 파고로부터 매우 어려운 선택을 요구받는 등 만신창이의 농업이 되고 말았다.

‘친환경 무늬’ 달고 표리부동한 체제, 안될 말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포식의 시대를 누가 열었는가? 물론 만사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일면만의 이유가 아닌 복합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첨단인 이 시대에 어둡고 춥고 배고프던 까마득한 과거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식량의 중요성만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되겠다. 지구촌의 식량위기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가 먼 나라의 일로만 느껴지는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8억 이상의 인구가 굶주림으로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지구촌 뉴스가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 여겨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큰 오산중의 오산이다.

부족한 식량은 언제 어디서든 들여와 충당할 수 있다는 생각인가 보다. 너무도 위험한 식량안보 불감증이다. 물론 세계의 식량생산량은 부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문제는 생산된 곡물을 우선 자국의 소비에 충당하고 남는 양을 수출한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가차 없이 독점적 폭리를 취하며 식량의 무기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미 농무부가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 쌀 시장도 심상치 않다는 전망이다. 쌀값 상승세가 지속되는데다 소비량이 생산량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현실은 어떠한가? 올해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농촌지역의 2인이하 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의 60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가가 1인가구의 60%에 육박하는 등 농촌의 과소화·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노동력과 생산성 부족을 무엇이 대체하겠는가? 여러 대안 중의 대안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극복이 가능하다.

농약도 의약품과 같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문명의 이기(利器)이다. 농약개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골격만 짚어보면, 생물활성·합성·제제·대사 분석·안전성 연구 분야에서 10년 동안 1,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35,000분의 1이란 경이적 확률을 극복해야만 농약으로 탄생할 수 있을 만큼 보배로운 자재가 바로 농약이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개발여건이 더욱 강화되어 2,000억원의 비용에 확률도

50,000분의 1이란다.

그럼에도 농약을 보는 세간의 시각은 어떠한가? 언제부터인가 친환경이란 용어가 등장하더니 만병통치약인 양 선(善)의 효과란 효과는 모두 그들의 몫이다. 그리하여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친환경농자재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면초가에 몰린 농업인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몸값을 천정부지로 높인다. 따지고 보면 농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비료와 농약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며 농업생산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친환경농업임에도 마치 이들 자재를 전혀 쓰지 않는 것인 양 오도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행농법 농가들을 선의 반대편에 서게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농약의 효과를 흉내 내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한다. 참으로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처세가 아닌가? 정제된 친환경 농업 분위기가 아쉽다.

얼마 전 모단체장은 잡지 기고를 통해 「일본 농업 미래포럼」에서 도출된 몇 가지 구체적 사항들을 열거하면서 ‘친환경과 유기농법만으로는 절대로 국제 경쟁력 없다’란 주제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구촌 대부분의 국가들이 친환경, 유기농법 농업을 쿠바에서 벤치마킹한다. 특히 이웃국가인 한국은 교도적 정신으로 본받기를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쿠바는 미국의 경제봉쇄로 인한 제반 산업들의 몰락으로 비료도 없고 농약도 없고 더욱이 사회주의 국가에 계획경제체제인 준 공산국가이다. 이것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다. 다시 말해 쿠바의 농업은 발전농업이 아니고 후퇴농업이라는 것이다. ‘한국처럼 일본이 쿠바를 본받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했다.”라고 말이다.

비록 이 주장이 일본 농업관련 발명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농업 현실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며 일순간 경각심까지 들게 한다. 그러면서 왜 국내에서는 이런 해안을 가진 주장이 제기되지 않는지 안타깝다.

농약산업, ‘과학·필수자재의 힘’이 가능케

만일 농약이 사람이라면 참으로 억울할 것 같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실재와는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과장되는 경우가 많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일면의 위험성 정보만으로 세론이 형성됨으로써 ‘무섭고 겁나는 것’이란 이미지가 확고하며 부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약은 살포되면 대부분이 환경중에서 햇빛이나 토양중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무독한 물과 공기로 된다는 사실과



농약개발 노력의 대부분이 사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쓰여진다는 사실 등은 가능한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또 우리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불합격률이 0.8%로 좋아져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중 농약잔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우려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한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전국 소비자대상 '농약오염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50.1%가 농산물 구입 시 농약 오염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997년도 조사결과보다 다소 의식이 완화된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조사결과이다.

우리 농약산업은 지금 친환경농업 분위기 확산으로 인한 감농약 정책 등 일련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변화하는 시대적 조류속에서 보다 안전성이 높고 쉽게 분해 되는 환경친화적인 농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제는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농약산업이 가져다주는 크나 큰 혜택을 공유하여야 한다. 물론 수어혼수(數魚混水)인 법이어서, 농약사용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극히 일부에서의 오염사고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강하게 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일시적 부정적 이미지가 농약 고유의 목적과 모습인양 머릿속에 고착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과속과 신호 미준수로 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마땅히 그 차를 운전한 운전자가 비판 받아야 한다. 자동차 자체의 결함인양 오도해서는 시쳇말로 옳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 포식의 시대를 견인해 온 작물보호제 산업은 안타깝게도 친환경·유기농

법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와 환상, 편견·오해, 과거농약에 대한 선입견,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왜곡된 정보의 여론형성 등 마치 몹쓸 것인 양 바라보는 갖가지 시각들과의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농약걱정 없는' '잔류문제 없는' 운운하며 불안심리를 조성, 돈벌이에 여념 없는 부류가 어디 한 둘인가? 비단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농약산업이 작은 퇴보와 진보를 반복하며 더딘 발전을 지속하고 있음은 '안전성을 담보' 하는 '과학적 힘'과 '노동 절감 및 생산성을 담보' 하는 '필수농업자재로서의 힘'이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작금의 식량사정과 농촌현실을 고려할 때, 농약 없는 농사를 외치는 공허한 목소리가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한계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평생 전답을 누비며 얻은 성치 못한 건강으로 신음하시는 노부모님께 들녘의 잡초 뽑기를 정녕 맡길 셈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목소리의 당사자들이 직접 피약별 들녘을 누빌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공자는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라고 했다. 우리 업계는 분명 모든 소비자가 진정 농약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신뢰하는 '천리 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하나의 안전성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한 걸음'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농약산업을 바라보는 일련의 부정적 시각이 역경이라면 그 또한 극복해야 한다. 역경은 이길수록 이로운 것이라 하지 않았는가? Y